

전도관 역사는 구세주를 출현시킨 역사였다 (11회)

전도관 5편 이만제단 시대 2부

차례
전도관 5편
이만제단 시대 2부
一. 박태선 영모님
二. 특별한 엄마 박태선 영모님
1) 특별한 엄마
2) 삼팔목운(三八木運) 시황출(始皇出)된 박태선 영모님

이 소 울음소리는 엄마를 찾는 엄마성(唵嘛嚩)이라고 했다. 이 엄마를 찾는 소리는 전도관 교인들이 박태선 장로님을 부르는 소리라는 것은 이미 앞에서 자세히 설명한 바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다. 이 엄마소리가 얼마나 요란하고 천지를 진동시켰는지 남사고 선생은 기록하기를 여광여취우명성(如狂如醉牛鳴聲...初章)이라고 적어놓고 있다. "미친 것 같고 술에 취한 것 같이 불러대는 소 울음소리 즉 엄마를 부르는 소리"라는 뜻이다. 전도관을 경유하여 오신 분들은 이 예언에 대하여 짜릿한 실감을 느낄 것이다.

천지를 진동시키는 이 엄마소리는 노구산(露救山=老姑山) 5만제단이 건설될 때부터 영모(靈母)님으로 호칭이 바뀌었다. 이유는 엄마라는 호칭은 너무 저속하게 들리니 접잖은 표현으로 '영모님'이 좋겠다고 하여 그렇게 바뀌어지기 시작했다. 이후부터 박태선 장로님의 호칭은 영모님으로 통일되었다.

二. 특별한 엄마 박태선 영모님

1) 특별한 엄마

'엄마'를 부르는 '소 울음 소리'는 광야의 외치는 소리의 주인공인 전도관의 박태선 장로님을 부르는 소리라는 것을 앞에서 자세히 설명하였다. 그러면 박태선 장로님이 자신을 '엄마'라고 인정한 그 '엄마'는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150만 명이나 되는 전도관 식구들에게 영적인 젖인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전 전도관 교인들의 엄마라는 뜻인가? 아니다.

이분은 아주 특별한 어머니이다. 박태선 장로님은 구세주를 해산의 수고 끝에

영적으로 낳아 키워 출현시키시는 아주 특별한 사명을 맡은 구세주의 어머니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서에 소울음소리나는 곳에 대해서 매우 강조하고 강조하여 기록해 놓은 것이다. 다음의 농경가의 예언을 보자!

唵嘛 唵嘛 阿父 唵嘛 天下第一
엄마 엄마 아부 엄마 천하제일
우리 唵魚 道乳充腸 이내몸이 엄마없
엄마 도유충장
이 어이살가
《龍弓歌(농궁가)》

"엄마 엄마 아부엄마 즉 아버지이면서 엄마 다시 말하면 남자이면서 엄마 역할을 하는 분으로 엄마라는 소 울음소리를 듣는 영적엄마, 이 엄마는 천하제일인 우리엄마다. 엄마의 도의 젖으로 자란 이 몸이 엄마 없이 어찌 살겠는가"라는 뜻이다.

영적 엄마를 찬양하는 내용이다. 아부엄마 즉 아버지 엄마라고 해서 남자이면서 엄마 역할을 하는 분을 말하고 있다. 얼마나 신기한 예언인가? 이 말씀은 다 영적인 말이다. 이 소 울음소리의 주인공인 영적 엄마에 대해서는 성경 속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다.

"보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서 7:14)

기독교인들이 예수가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났다고 주장하는 성경구절이지만 말도 안 된다.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도 없거니와 앞에서도 누누이 설명한 것같이 영적인 처녀인 영모님을 말한 것이다. 영모님이 영적으로 아들을 낳아 키워 출현시키게 되는데 이와 같이 출현하신 분이

인류의 구세주가 되신다. 그래서 농경가에서 이분을 '아부엄마'라고 예언하여 남자이면서 엄마라고 불리는 영적엄마를 자세히 적어 알리고 있는 것이다.

또 "하늘에서 큰 이적을 보이니 한 여인이 있어 해를 옷입듯 하고 달이 그 발아래 있고... 이 여인이 아이를 배어 해산할 때가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을 때... 용이 해산할 여인 앞에서 해산하기를 그 아이를 삼키고져 하더니..." (묵12:1-4)

여기서도 여인이 아이를 낳는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 여인은 해산의 수고를 한다고 써여 있다. 여기에 기록된 여인도 영적인 여인이고 또 해산의 수고를 하신다는 것도 영적인 말이다. 그러나 여기에 예언된 아이를 낳는 여인도 역시 영적인 엄마를 말한다. 박태선 영모님도 당신이 해산의 수고를 한다고 노상 말씀을 하셨다.

구세주를 영적으로 낳아 출현시키는 사명을 가지고 오신 박태선 영모님은 남자이면서 엄마라는 호칭을 얻은 영적엄마이다. 또한 그 영적엄마는 첫번째로 출현하신 하나님이기도 하다. 또 영모님은 구세주를 찾으시는 광야의 외치는 소리의 주인공이기도 하시다.

2) 삼팔목운(三八木運) 시황출(始皇出)된 박태선 영모님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 내가 가라사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네게 열방을 유업으로 줄 것이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라. 내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깨뜨림이여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시편 2편)"

아들을 낳은 여인은 바로 하나님이시

를 선포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영적엄마가 되시어 구세주 아들을 영적으로 낳으신 것이다. 그러므로 시편 2편에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 박태선 영모님은 통상적인 평범한 엄마가 아닌 구세주를 낳는 아주 특별한 어머니인 것이다. 그리고 이 엄마는 하나님 자체인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구세주를 영적으로 낳고 키워 승리하신 구세주 하나님을 출현시키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다.

開闢以來初逢運 三八木運始皇出 改過
개벽이래초봉운 삼팔목운시황출 개과

遷善增壽運 世人不知塵心事
천선증수운 세인부지한심사

"천지개벽 이래 처음 맞는 호운으로 삼팔목운으로 오시는 분은 육황상제 하나님으로 출현을 시작한 첫번째 하나님이다. 이때에 개과천선하면 수명이 많이 연장되어 영원히 사는 운이 되는데 세상 사람이 이를 알지 못하니 한심한 일이다.(弄弓歌(농궁가))"

박태선 영모님은三八木運(삼팔목운)으로서 동방을 맡은 동방의 의인이시다. 이 동방의 의인은 육황상제 하나님 이시며 또한 상제 하나님으로 처음 출현하시는 첫번째 하나님이다. 이분이 나타나는 때부터 하늘의 천지공사는 시작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위의 내용은 개벽이래 처음맞는 호운이라고 했다. 목운이 되시는 영적엄마가 출현하시므로 한국의 국운이 활짝 열리기 시작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개벽 이래 초봉운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이분이 나타나서 영적인 아들 구세주 출현에 성공을 거두시게 되면 이 세상은 지상천국이 이루어져 영원무궁토록 죽지 않는 기쁨의 세계에

서 살게 되는 것이다.

박태선 영모님을 첫번째로 출현하신 육황상제 하나님이라고 설명했는데 그렇다면 또 다른 하나님이 출현하시는가? 그렇다. 세 분 하나님이 출현해야 완성이 되는 것이다.

三眞神中一人出 三聖一體一人出
삼진신중일인출 삼성일체일인출
(은비가(隱秘歌))

"세 분의 하나님 중 한 분이 출현하신다. 세 분 하나님이 일체로 합되어 한 분 하나님으로 출현하신다"는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박태선 영모님을 시작으로 세 분 하나님이 차례로 출현하여 한 분으로 합되어 일인출(一人出)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처음으로 박태선 하나님이 먼저 출현하신 것을 소개하면서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는 것이다.

上辰巳自手成家 中辰巳求婚十年 下
상진사자수성가 중진사구혼십년 하

辰巳成德握手 華燭東方琴瑟之樂
진사성덕약수 화촉동방금슬지락

(세론시(世論詩))

"상진사는 자수성가를 하며 중진사는 십년을 구혼을 하며 하진사는 덕을 이루어 악수를 하니 동방에는 화촉이 밝히고 금슬의 즐거움을 누리리라."

해설) 상진사 자수성가 : 상진사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어 혼자 힘으로 두분 하나님을 찾아 키워시는 것을 말한다. → 박태선 하나님

중진사 십년 구혼 : 십년을 창조주 하나님께 구혼하여 창조주 하나님과 일체가 됐다는 뜻이다.(영적인 말) → 해와 하나님
하진사는 세번째 하나님으로 아담이

간지다. 두 분 하나님이 이분에게 오시어 일체를 이루시니 완성자 하나님인 구세주가 되신 것이다. 그리고로 영원무궁토록 한 몸(삼위일체)이 되신 것을 세상에 금슬 좋은 부부에 비유한 것이다. → 아담이긴자 구세주 하나님

그래서 은비가에는 三辰巳出三聖合未復合理一人出(삼진사출삼성합 말복합리일인출) "세 분 진사성인이 나오시어 합하시는데 마지막에는 다시 합하는 이치로 한 분으로 출현하신다"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은 성경에서도 똑같은 내용으로 예언되어 있다. "이기는 자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김을 얻고 아버지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묵3:21) 이처럼 진리는 동일한 하나의 원리로 이루어져 하나의 원리로 결말지어져야 됨을 알 수가 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박태선 영모님은 홀로 먼저 오시어 두 분 하나님을 찾아 키워 완성의 구세주를 해산(解産)하는 수고를 하시는 아주 특별한 어머니이다. 그러므로 이분의 존재를 모르고서는 완성자 구세주를 쉽게 찾아올 수는 없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말을 써 놓았다.

修道先出容天祐을 世人不知모르거든
수도선출용천박 세인부지

天崩地拆素少立을 十勝人에게 問疑하
천붕지택소소립 십승인 문의

소 (도부신인(桃符神人))

"수도하여 먼저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난 분이 박 씨인데 이분을 세상 사람들이 모른다고 하거든 무너진 하늘나라를 소사에서 다시 세운다는 십승인에게 문의해 보시오. 먼저 수도하여 하나님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신 박태선 영모님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말이다. 그 때야만 소울음소리 나는 곳을 정확히 알고 찾아 갈 수 있다.

격압 남사고 선생은 그래도 소울음소리 나는 곳을 혼동하여 잘못 찾을까봐 다음과 같이 확실한 출처를 예언하여 놓았다. 그곳은 다름아닌 광야의 외침의 주인공 박태선 장로님이 이루어 놓은 신앙촌이다.*

도덕경 해설

도덕경 35장 해설

여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도를 닦으려고 산으로 들어가고, 또 도를 찾기 위해 어디든 마다하지 않았다. 과연 인간에게 도란 무엇이고, 도를 구하면 어떻게 되는 까닭일까?

이것에 대하여 답을 구하기 전에 먼저, 사람들이 왜 도를 찾았는가 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짚어보아야 할 것 같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도는 인간의 본향(별유천지, 천국, 극락)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애절한 몸부림인 것이다. 도가 없는 세상에서의 삶은 필연적으로 수많은 고통과 불행의 피할 길이 없다. 그래서 속세를 참

고 견디며 살아야 할 사바세계(죄악 세상)라 정의하는 것인데, 이러한 시련과 고난이 반복되는 고통의 삶을 벗어나 항상 기쁘고 즐겁고 자유하며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고자 궁구하는 삶이 바로 도를 구하게 되는 이유이다.

속세에서의 삶은 아무리 행복하려고 애를 쓰고 기를 써도 고통과 불행의 늪에서 헤어날 수 없고, 오히려 더욱 깊이 빠져드는 모순과 악순환을 낳게 된다. 때문에 속세의 삶을 제대로 직시하는 건 사람은 세상의 삶에 조금도 미련을 두지 않고 훌훌 털어버리면서 인간

행복(별유천지, 천국, 극락)의 길(道)을 찾아 떠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살펴본 바와 같이 일단, 도를 구하여 얻은 사람은 사바세계의 고통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자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세속인의 생각과 생활방식과는 차원이 다르다. 그러므로 무도인은 도를 얻은 사람으로부터 뭔가 깨달음과 그들이 누리고 있는 참다운 인생의 행복을 맛보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게다. 그래서 노자의 도덕경과 같은 도담(道談)을 가까이 하려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다. 이 장을 통해 도인의 별유천지(別有天地)의 정신적 열락의 세계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맛을 보자.

執大象(집대상): 대도(大道)를 붙잡으면

속세의 삶의 방식(오감과 욕망에 따른 삶)을

벗어나 큰 도(물아생망, 영담허무, 무위자연, 별유천지의 세계)의 세계에서 살면

天下往(천하왕): 천하(세상)에 들어가 살지라도

속세를 떠나 산속이나 외딴 곳에서 도를 닦는 도인이라면 여길 수 있으나, 어느 한 경지에 도달한 도인은 세상에 들어가 살지라도

往而不害(왕이불해): 세속에 들어가 살아도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참다운 도인은 괴롭고 고통으로 들끓는 불지옥(잡념과 망상으로 몸과 마음이 한겨울 달아오른 삶의 현장) 같은 세상에 들어갈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다. 도를 제대로 닦지 않는 사람이라면 일반 세상 사람들이 취생몽사(醉生夢死)하는 것처럼 무도한 삶의 습성에 쉽게 휘말릴 것이나, 도의 어느 한 경지에 다다른 사람은 세상에 들어가 살지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安平太(안평태): 안락하고 평안하며 태평한 것이다

인간과 만물을 두루 아끼고 공경하면서 배뿔며 사는데 그 누가 자신을 해할 것이며 욕되게 할 것인가?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이기심과 욕심에 사로잡혀 산 나머지 혹여 어떻게 잘못되지 않을까 초조하거나 불안해하며 전전긍긍할 수 있으나, 자존심과 욕심, 이기심이 없는 도인은 항상 안락하고 평안하며 태평하다는 것이다

樂與韻(악여이): 세상 즐거움으로 미혹하여

세상 그 어떤 즐거움과 향락으로 미혹하여도

過客止(과객지): 지나가는 객의 발길을 멈출지라도

도인의 마음을 미혹하여 발길을 멈추게 할지라도

道之出口(도지출구): 도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도의 한량없는 즐거움과 희열을 맞본 도인의 입에서 나오는 한결같은 말은

淡乎(담호): 담담하고

마음의 동요가 없이 고요하고 담담하여

其無味(기무미): 아무런 흥미를 못 느끼며

그것에 대한 아무런 흥미가 없는 것이다.

視之不足見(시지부족견): 보려고 해도 족히 볼 수 없고

그 도의 실체가 무슨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에 보려고 해도 족히 볼 수가 없고,

聽之不足聞(청지부족문): 듣고자 해도 족히 들을 수 없으며

무슨 소리를 내는 물건이 아니기에 족히 들을 수도 없는 것이다.

用之不足既(용지부족기): 그 작용을 족히 알아차릴 수 없다.

도의 오묘하고 신비한 그 마음과 정신 작용은 족히 그 기미를 알아낼 수가 없기 때문이다.*

김주호 기자



승리신문	1990. 3.3 등록번호 다 - 0029
발행인 겸 편집인 김중만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람들이 실제로 죽지않는 원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이 없는 개벽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우 422-826 홈페이지 www.victor.or.kr	광고 및 구독신청 전화 032) 343-9985 FAX 032) 349-0202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